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음식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CNBC: 연방행정부, 학자금 용자자 15만명에 12억불 탕감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다운존스 종목에 월그린 빠지고 아마존 들어가
- WSJ: 캐피털원의 디스카버 카드 인수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 [물류]

- WSJ: 소비자들, 전자 상거래 창고 집주변 건축에 반대

####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금리, 10월 이래 7% 이상 큰 상승

#### [에너지]

- CNBC: 시장이 금리 인하 주목하는 가운데, 유가 소폭 하락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미국만 나은 경제 상황, 미국에도 좋지 않다

#### [전기차]

- WSJ: 하이브리드 인기 얻지만, 환경단체로부터 의문 제기

#### [인공지능]

- CNBC: 의사 중 83%, "AI가 궁극적으로 업무에 도움 될 것"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포드, 1월 매출 크게 감소하자 가격 인하 나서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It's Been 30 Years Since Food Ate Up This Much of Your Income** 음식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미 소비자들은 지난 2022년과 작년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다.
- 그러나 식당 등의 물가는 2023년 1월에 비해 지난달 5.1% 올랐고, 식료품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1.2% 올랐다고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식당과 식료품 회사들은 여전히 상승하는 인건비와 코코아 같은 일부 재료비에 대응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 2022년 현재 미국인들은 식품에 가처분 소득의 11.3%를 지출하고 있다.

## WSJ 기사

**CNBC: Biden administration to forgive \$1.2 billion in student debt for over 150,000 borrowers****연방행정부, 학자금 융자자 15만명에 12억불 탕감**

-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수요일 15만3천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에게 대해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을 통해 12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당 탕감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상환을 하고 있으며 상환금이 1만2천불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 CNBC 기사

**CNN Business: Amazon is replacing Walgreens in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다우존스 종목에 월그린 빠지고 아마존 들어가**

-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월그린이 빠지고 그대신 아마존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 이 지수를 관리하는 S&P 다우존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다우존스의 소비자 소매 익스포저를 늘렸다고 말했다.
- 아마존은 첨단기술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번째로 다우존스 30지수에 편입됐다.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분'에 들어있는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은 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더 규모가 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 CNN Business 기사

**WSJ: What Consumers Need to Know About the Capital One-Discover Deal****캐피탈원의 디스카버 카드 인수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 캐피탈원의 3백50억불 규모의 디스카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인수키로 했다. 대형 신용카드사간의 합병인수다.
- 이 거래로 캐피탈원은 디스카버의 이른바 네트워크에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결제 네트워크는 대형 소매업체에서 작은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처리하는 통신 시스템이다.
- 디스카버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제외하고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 내 몇 없는 신용카드 회사중 하나이다.

- 캐피털원은 카드에 디스카버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WSJ 기사

### [물류]

#### **WSJ: Don't Build That E-Commerce Warehouse in My Backyard, More Communities Say**

##### **소비자들, 전자 상거래 창고 집주변 건축에 반대**

- 창고 개발업자들이 지역사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더 많은 지방정부들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물류 창고들에 제동을 걸고 있다.
-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배송은 좋아하지만 집 주변에 창고가 들어서면서 교통량 증가, 소음, 오염 등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방 정부들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민들의 불만에 수용하는 입장으로 창고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WSJ 기사

### [주택]

#### **Bloomberg: US Mortgage Rates Jump Above 7% for First Time Since December**

##### **미 모기지 금리, 10월 이래 7% 이상 큰 상승**

- 미 모기지 금리가 10월 초 이후로 7% 이상 크게 상승하며, 초기 회복 상태에 들어간 주택 시장에 타격을 입혔다.
- 오늘 수요일 발표된 미 모기지 은행 협회(MBA) 자료에 따르면,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2월 16일로 끝난 주에 19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7.06%를 기록했다.
- 주택 구입 모기지 신청 지수는 10% 이상 하락해 지난 11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 [에너지]

#### **CNBC: Oil prices slipped as traders wait for more insight on when Fed might cut rates**

##### **시장이 금리 인하 주목하는 가운데, 유가 소폭 하락**

-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동향을 기다리면서, 원유 선물가가 소폭 하락했다.

- 4월 계약물인 서부텍사스유는 0.3% 떨어져 배럴당 76.79달러를, 4월 계약물 브렌트유 또한 0.3% 감소해 배럴당 82.09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 미 원유와 글로벌 벤치마크 유가는 지난주 중동 분쟁이 다시 격화됨에 따라 트레이더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1% 이상 감소했다.

CNBC 기사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The Dangers of Relying on the US to Power the Global Economy**

##### **미국만 나은 경제 상황, 미국에도 좋지 않다**

- 미국의 견고한 경제가 더 깊어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상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IMF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달러 강세도 지속되고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중국과 유럽의 경제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는 세계 경제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의미한다.
- 시카고 연방은행장인 Austan Goolsbee는 글로벌 경제 둔화가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내수시장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며, 다른 경제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일으킬 것이라 말했다.

Bloomberg 기사

### [전기차]

#### **WSJ: As Hybrids Become More Popular, Their Green Benefits Are Questioned**

##### **하이브리드 인기 얻지만, 환경단체로부터 의문 제기**

-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중에 인기를 얻으면서, 환경 운동가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지난 10월엔 Public Citizen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로 브랜드화하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런 논쟁은 올봄에 예정된 미 환경보호청의 규제안 발표를 앞두고 벌어진 것이다. 작년에 제안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2032년까지 차량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기존 요건보다 56%까지 감축해야 한다.
- 도요타, 혼다 자동차 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은 이에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2032년까지 67%의 전기차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WSJ 기사

**[인공지능]****CNBC: Nearly all doctors feel burnout, but many are encouraged by potential of AI, survey says****의사 중 83%, "AI가 궁극적으로 업무에 도움 될 것"**

-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미국 의사들이 번아웃, 인력 부족, 그리고 지나친 행정 업무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때문인지 설문에 참여한 의사의 83%가 AI가 궁극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것이다.
- Athenahealth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Nele Jessel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복잡성과 부담감이 해결된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Bloomberg: Ford Slashes Price of Electric Mustang Mach-E After Sales Plunge****포드, 1월 매출 크게 감소하자 가격 인하 나서다**

- 지난 1월 포드가 전기차 모델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51%나 감소하자, 전기차 모델인 머스탱 마크-E 모델의 가격을 최대 8천1백불까지 할인했다.
- 전기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은 11% 감소했으며, 마크-E 모델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세금 공제 혜택 요건 기준을 강화하면서 3천7백50달러의 세금 혜택을 상실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끈적한 물가'에 갈수록 미뤄지는 美 금리인하..."첫 인하는 6월"**

로이터 설문서 51%가 6월 끝아...83%는 2분기중 전망  
1월 FOMC 의사록 발표 앞두고 "연준 양적 긴축 이어질 것" 관측도

최근 미국 물가 지표가 연이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줄어든 가운데,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늦은 6월 금리 인하 시작 관측이 절반을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은 14~20일(현지시간) 시장 이코노미스트 10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절반을 살짝 넘는 53명(50.96%)이 첫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6월을 꼽아 5월 전망(33명·31.73%)을 앞섰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9월부터 첫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월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전망이 3월에서 5월로 늦춰진 데 이어 이번에는 6월로 또 한 번 늦춰진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